



# 남녕고, 뉴욕 한복판서 한국씨름 알린다

제주도씨름협회, 내달 6-8일 미동부 추석대잔치 참가  
퀸즈보태니컬가든서 시범... “스포츠교류 활성화 기대”

남녕고 씨름부가 추석을 앞두고 뉴욕을 방문해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재인 한국씨름 기술시범을 선보인다.

제주도씨름협회(회장 송승전)는 오는 9월 6-8일 미국 뉴욕 퀸즈보태니컬가든에서 열리는 제37회 미동부 추석대잔치에 참가해 국제스포츠교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뉴욕 한인들의 대축제로 치러지는 미동부 추석대잔치는 씨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포 2·3세대들을 위해 한국민속경기 계승 차원에서 씨름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제주도씨름협회와 뉴욕씨름협회는 지난 2017년 협약을 통해 2018년부터 씨름국제스포츠 교류 활

동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당시 대한씨름협회 국제사업으로 진행된 행사에 단장 자격으로 선수단을 이끌었던 송승전 회장은 이번 교류에도 단장으로 참여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제주 고등부 유일의 남녕고 씨름부원 4명과 남녕고 졸업 후 대학에서 활약 중인 김지혁(중원대 4)과 홍용현(인하대 3)을 포함한 6명의 선수와 함께 남녕고 서영삼 부장, 박현우 감독이 참가한다. 또한 천하장사 출신의 이태현 용인대 교수가 부단장으로 함께해 모두 10명의 선수단으로 꾸려진다.

송승전 회장은 “이번 교류 활동은 대한민국 국가무형문화재 제131호인 씨름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



오는 9월 6-8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37회 미동부 추석대잔치에 참가해 한국씨름의 기술을 선보일 남녕고 씨름부. 사진=제주도씨름협회 제공

할 것”이라며 “제주체육으로는 미국과의 스포츠교류가 처음인 만큼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송 회장은 유럽과의 씨름 교류를 추진해 지난해 3월 제주도청 선수단을 이끌고 스페인 테네리페를

방문해 원정교류 활동을 펼쳤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스페인 선수단을 초청해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도 10월 말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씨름협회의 지원을 받아 스페인과 교류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표성준기자 sipyo@ihalla.com

여자축구 대표팀 새 사령탑  
현대제철 최인철 감독 선임

제주Utd 미드필더 아길라르  
코스타리카 국가대표 발탁

6년 5개월간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던 윤덕여(58) 전 감독의 후임으로 여자실업축구 인천 현대제철의 최인철(47·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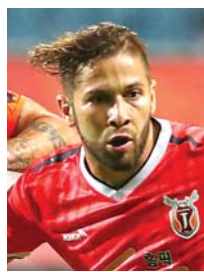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대한축구협회는 29일 여자대표팀 감독 후보 중 최인철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후 평가를 거쳐 다음 월드컵까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최인철 감독은 국내 여자실업축구 WK리그에서 ‘성과’를 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최 감독은 지난해까지 현대제철의 WK리그 통합 6연패를 지휘했다.

최 감독은 여자대표팀의 10월 A매치(국가대표팀간 경기) 때 사령탑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주유나이티드의 ‘승리의 설계자’ 아길라르(27·사진)가 코스타리카 대표팀에 발탁됐다.



코스타리카는 다음달 7일 에스 타디오 나시오날 데 코스타리카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친선경기를 치른다. 오는 10월 11일 아이티와의 CONCACAF 네이션스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 코스타리카는 아길라르를 이날 소집 명단에 올려 최종 점검에 나선다.

아길라르는 지난 6월 북중미 골드컵 조별리그에서 연속골을 터트렸다. 지난 25일 FC 서울과의 홈경기(1-1 무)에서는 경기 막판 전매특허인 날카로운 원발 슈팅으로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을 작렬시키며 최근 컨디션 절정에 오른다. 표성준기자

올해 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내달 28일 종료  
포스트시즌 내달 30일 예상

2019 프로야구 KBO리그가 9월 28일 정규시즌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포스트시즌은 이르면 9월 30일에 시작한다.

KBO는 29일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올 시즌 우천으로 미뤄진 38경기 와 기존에 미뤄진 5경기를 합한 총 43경기를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편성했다.

8월 29일부터 우천 등으로 경기가 취소되면 예비 일정에 우선 편성하며 예비 일정이 없는 대진인 경우 9월 14일 이후 더블헤더로 소화한다. 경기가 취소된 팀의 맞대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추후에 편성한다.

더블헤더가 편성되면 첫 번째 경기는 평일 오후 3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한다.

더블헤더 2차전은 평일 오후 6시 30분,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5시에 열린다. 1차전이 취소되거나 일찍 종료하더라도 2차전 개시 시간은 변하지 않는다. 1차전 경기 시간이 길어지면, 2차전은 1차전 종료 후 20분 뒤에 열린다. 연합뉴스



시즌 12호 홈런 바라보는 ‘4번 타자’ 최지민 최지민(템파베이 레이스)이 28일(현지시간) 미국 휴스턴 미네이스트파크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19 메이저리그(MLB) 경기에서 4회에 자신이 친 투런 홈런을 바라보고 있다. 최지민은 이날 4번 타자 겸 1루수로 출전해 1-0으로 앞선 4회 1사 1루에서 우중간 펜스를 라인드라이브로 넘겨가는 투런 아치를 뽑았다. 그의 시즌 12번째 홈런. 연합뉴스

벤투호 합류 앞둔 유럽과 태극전사  
이번 주말리그 출전... 득점포 가동

손흥민, 시즌 첫 골 도전  
황의조·황희찬 연속골 사냥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태극전사들이 축구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득점포를 달군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다음 달 5일(이하 한국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평가전을 치른 뒤 같은 달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1차전 원정 경기를 벌인다.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은 태극전사들은 이번 주말 리그에서 대표팀 합류 전 마지막 실전을 가진다.

손흥민(토트넘)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시즌 첫 골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9월 2일 오전 0시 30분 영국 런던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아스널과 2019-2020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는 손흥민이 토트넘의 4-4-2 포메이션에서 해리 케인과 투톱으로 호흡을 맞

추리라 예상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20일 열린 아스널과의 카라바오컵(리그컵) 8강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팀의 2-0 완승을 이끈 바 있다. 손흥민의 유일한 아스널전 득점이다.

프랑스 리그1(1부리그) 무대 진출 후 세 경기 만에 첫 득점포를 쏘아 올린 황의조(보르도)는 연속골을 노린다. 황의조는 9월 1일 오전 0시 30분 리옹과 리그1 4라운드 원정 경기 출전을 준비 중이다.

벤투호 출범 후 치른 16차례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에서 한국 선수 중 가장 많은 7골을 넣은 황의조도 리옹전을 치르고 대표팀에 합류한다.

오스트리아에서 맹활약하는 공격수 황희찬(잡츠부르크)은 9월 1일 오전 0시 슈바르프스키 티롤과의 정규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역시 연속골 사냥에 나선다.

황희찬은 정규리그 2라운드를 제외하고는 올 시즌 매 경기 공격포인트를 올려 컵 대회를 포함한 6경기에서 3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종아리 부상에서도 회복한 모습을 보여 대표팀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연합뉴스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일반여행업등록 제1016호★ 2009 문화관광부 제주마이스터 & 인센티브제주여행 상품 인증/2억원 보증보험 가입업체/예약계좌: 제주은행 21-13-003418 예금주: 제주홍익여행사 '고객감동 해외여행서비스'

## 못말리는 제주직항전세기

TOUR  
예약폭발  
마감임박!

**말레이시아/싱가폴/말라카**

매주 2회출발 (화, 목)  
**999,000 원~**

**쿠알라룸푸/말라카/젠팅**

매주 2회출발 (화, 목)  
**799,000 원~**

**장사/장가계 5일**

매주 월요일  
**999,000 원**  
(포함: 팀·중국어비자비)

**방콕/파타야 3박5일**

매일 출발  
**589,000 원~**

**대만 3박4일**

출발일: 여행사 문의 (팀별도)  
**699,000 원~**

**백두산 북파서파**

출발일: 여행사 문의 (비자비, 팀별도)  
**690,000 원~**

**브루나이공화국 3박 5일**

12/21ㄹ 꿈에 그리던 휴양지  
12/25ㄹ 7성급 호텔에서의 휴양!  
제주직항 1인 **1,590,000 원**

▲ 전일정 7성급호텔 스위트룸 3박  
▲ 노쇼핑 상품 ▲ 읍선2가지 포함

**하노이/하롱베이/닌빈(짱안) 3박5일** 제주직항으로 떠나는 환상의 여행

10/02ㄹ 전여석 20석, 12/28ㄹ  
“황금연휴특가”  
제주직항 선착순 **899,000 원**

★특식3회 (파라다이스뷔페, 씨푸드, 삼겹살 무제한)  
★전신마사지 1시간 (팀별도), 베트남 전통노모자 증정, 스트라카 포함